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Commuter Couples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강사 김 경 은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 옥 분

Schoo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im, Kyoung Eun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 : Chung, Ock B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commuter coup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6 mother - child dyads. The children were first to six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s. For data analyses, one-way ANOVAs, Scheffé Test for pairwise comparison,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marital adjustment in terms of the duration of commuting, the number of children, the frequency of fathers' visit and frequency of making a call.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adaptation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fathers' visit. Also,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marital adjustment subscal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subscales in commuter couples.

I. 서론

한국 사회는 1960년 이후 30여년 사이에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각 부문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단순히 가족 규모 측면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 사이의 역할 분담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박숙자, 1994). 이에 대한 두드러진 예로 맞벌이 부부, 비동거가족과 독신가족을 들 수 있다.

그 중 비동거가족은 주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1960년대의 이농현상, 1970년대 이후의 노동력 해외 진출과 1980년대 이후의 지방산업 활성화와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태현과 박숙자, 1992; 박숙자, 1994).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28% 정도의 가구가 비동거가족으로 보고되고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그 중 가구주나 가족원이 지방의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이 모두 지방의 근무지로 이주하지 않고 취업자(대부분이 가구주)만이 이주하고서 일주일 또는 일정 단위로 집에 오는 소위 '주말부부가족' 형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김태현과 박숙자, 1992; 손승영, 1995).

외국에서도 비동거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비동거가족의 발생원인이 변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헤어져 지냈으나, 80년대 이후로는 맞벌이 부부의 직업 이동성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특히 여성의 직업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동거가족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Gross, 1980; Grove & Horn-Wingared, 1991). 이러한 사회 추세에 따라 비동거가족에 관한 최근의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와 직업에서의 만족도와 긴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한편, 지금까지 비동거가족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다루었다. 주말부

부가족의 경우, 아버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사는 물론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긴장과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허영숙, 1994). 또한 남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정기선, 1985). 그 중 어머니는 자녀 훈육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김태현과 박숙자, 1994)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 보호 및 통제와 같은 아버지가 할 일까지 어머니가 혼자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는 적절한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애정이나 적절한 통제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어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시해야 할 점은 첫째, 한국의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몇몇 제시된 연구들도 사례에 근거를 둔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만이 제시되어 있고, 둘째, 무엇보다도 가족과 관련된 사회 문제 측면에서 주말부부가족을 다루다 보니, 주말부부가족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과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말부부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셋째, 한국 사회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주말부부를 선택하는 동기과 배경에서 차이가 나고,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들이 주말부부가족으로의 변화가 부부 관계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보다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말부부가족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기능에 따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아동의 발달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규명하는 것에서 아동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떠한 특성들이 아동의 회복을 촉진시키는지를 고려하는 연구로 발달되어 왔듯이,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연구도 단순히 주말부부가족과 동거가족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 왜 몇몇 가족은 문제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잘 적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말부부가족 내에서도 개별 가족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볼 때, 가족구성원 각자가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처 극복하고, 가족 구성원 서로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 뿐 아니라 아동의 적응도 달라지리라 기대된다. 즉, 주말부부가족이라는 가족형태 그 자체가 부부관계와 아동의 적응에 문제가 된다고 보다는 주말부부라는 갑작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느냐가 부부관계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정도는 일생을 통해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Grossman, 1977). 아동기에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 특히 가족내에서 느끼는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과 같은 정서적인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직면했을 때 행동장애타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Luster, 1990). 다른 선행연구들(Goldberg & Easterbrook, 1984; Howes & Markman, 1989)에서도 부부간의 일치, 부부간의 화합과 조화, 어머니의 높은 결혼만족도, 행복한 결혼적응은 아동의 안정된 애착,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주말부부 가족 중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

해 알아보고, 양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 아동의 나이, 자녀수, 결혼기간, 주말부부를 한 기간, 집에 오는 횟수, 전화통화 횟수)에 따라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주말부부가족

1) 한국의 주말부부가족

가족은 일반적으로 혈연공동체, 거주공동체, 운명공동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거주공동체의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동거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비동거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숫자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최근 한국보건사회원(1990)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약 28%가 비동거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이후에 나타난 비동거가족은 '주말부부가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주말부부가 출현하게 된 것은 행정적, 교육적, 문화적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장영식, 1995)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 중 가구주의 직장이 지방으로 옮겨질 경우 전가족이 옮기겠다는 응답은 19.8%밖에 되지 않아 가능하면 서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높은 교육열, 기업의 지방 이전화 및 해외지사 설립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간 노동력 이동이 빈번해짐과 동시에 교통수단의 발달,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젊은층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가족부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비동거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비동거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문제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정기선(1985)은 해외취업으로 인한 '비동거가족'의 부부관계를 연구했는데, 비동거가족 중 54%는 자녀 보호 및 가족 안전의 문제로, 16%는 자녀 교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은 가사와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도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친척과의 문제도 혼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긴장과 위기의식을 느끼는데(박숙자, 1994), 그 중 부모역할에 대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숙, 1994). 비동거가족의 경우 자녀의 교육과 보호 및 양육과 통제의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주어진 결과, 가족 내에서 자녀에 대한 모친의 강화와 부친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태현과 박숙자(1994)에 따르면 비동거부부가족은 도구적 측면에서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훈육과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외국의 주말부부가족(통근자부부: commuter couple)

Gross(1983)는 통근자부부(commuter couple)를 배우자들이 분리된 거주지에서 한 주에 몇 일동안 떨어져 살고 그 기간이 몇 달 이상인 부부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정의가 수정되어 통근자부부는 맞벌이부부 생활양식 중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Hertz, 1986). 현대의 통근자부부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러한 생활양식이 직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Gerstel & Gross, 1984). Gross(1980)는 이러한 결혼 형태를 통근 결혼(commuter marriage), 장거리(long-distance) 가족, 두 지역(two-location) 가족, 또는 기혼독신(married single)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미국내 약 100만쌍의 부부가 이러한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참여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Bunker, Zubek, Vanderslice, & Rice, 1992; Gross, 1980).

통근자부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와 직업에서의 만족도와 긴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Gross(1980)는 통근자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긴장에 대해 연구하였고, 통근자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둘째, 결혼지속 기간이 길며, 셋째, 적어도 한 배우자가 확고한 직장 경력을 가지고 넷째, 아동 양육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부일수록 생활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했다.

Gerstel과 Gross(1984), Groves와 Horn-Wingerd(1991)는 개인, 가족, 직업 측면에서 통근자부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개인적 관점에서 독립의 기회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고, 가족의 관점에서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 가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직업영역에서는 각각의 배우자가 동등하게 가족의 제약없이 직업생활을 추구하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 반면 다른 일반 가정처럼 매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통근자부부의 행복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통근(Commuting)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더 행복하다(Bunker et al., 1992; Gerstel & Gross, 1984; Grove & Horn-Wingerd, 1991)고 한다.

2. 결혼적응의 개념 및 관련변인

결혼적응이란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갈등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보다 발전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하는 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1980년대 이전에는 성별, 수입,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가족형태, 자녀수 등 사회 경제적 요인, 인

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의사소통, 애정, 역할기대와 역할수행과 같은 상호작용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혼적응과 가족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부부의 역할갈등과 관련된 부부관계요인과 자녀양육의 문제,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가족관계요인이 결혼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아영, 1993; 허영숙, 1995).

그리고, 감정노출정도, 언어표현정도, 의사소통양식과 결혼적응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서로의 다양한 개성과 사고를 이해함과 동시에 폭넓은 대화를 하고 개방적인 언어표현과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부간의 원만한 결혼이 이루어진다(김인숙, 1988; 류청옥, 1992). 또한, 부부가 상호유사성을 느끼고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부부관계의 적응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고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만족이나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보니 상대적으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짐에 따라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감정표현, 적절한 역할 기대, 만족스런 역할 수행과 같은 상호작용 요인들은 결혼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3. 아동의 사회적 적응

아동은 출생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초, 사물에 대한 태도, 관습, 가치관 등을 배우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적응이란 생체의 욕구에 대한 적응이며,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개체의 욕구해소 과정으로 이것은 객관적 사회면에서의 외적 적응과 주관적 자아측면에서의 내적 적응으로 분류된다. 외적 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타인과 협동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내적 적응은 개인의 주관적 세계로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 수준에 견주어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충족감, 자존감,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의 사회적 적응정도는 일생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Grossman, 1977).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 인지능력,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둘째, 부모의 성격, 지적 수준, 가치관, 정서 상태, 가정 내의 자녀수와 같은 가족적 요인,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요인이다. 아동이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고, 가족 내에서 사랑, 수용과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버지 부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주고, 현실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 훈육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 엄격성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보완한다. 그러나,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는 올바르고 엄한 훈육보다는 떨어져 있는 동안 배필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주느라 오히려 훈육의 역할까지 어머니가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역할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역할갈등이 해소되고,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발달을 연구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결혼관계가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Belsky(1984)는 부부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아동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관찰을 통해 측정된 부부간의 화합, 어머니의 높은 결혼만족도, 그리고 낮은 부부 갈등은 안정된 애착관계 그리고 아동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Goldberg & Easterbrook, 1984; Howes & Markman, 1989).

가족 내에서의 부부 상호간의 긴장, 불화, 갈등으로 인해 아동은 성격 형성을 하는 데 있어 부적응을 초래하고, 그 결과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Burgess는 부모들 사이의 행복한 결혼적응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했다(김상빈, 1994, 재인용). 결혼적응이 긍정적인 부모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적게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가족이 발달함에 따라 감정적인 측면은 아동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긴장된 가족의 경우, 아동은 불안정한 정서적 환경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정서적 사회화를 경험하게되어 그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Jone-Leonard, 1985, Easterbrooks & Emde, 1990)고 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불일치적인 결혼관계는 부부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 민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Esterbook & Emde, 1990).

반면 부부 사이의 조화나 부부간의 일치하는 부모-자녀간의 이해를 돕고 수용적으로 만들고(Paulson, 1972),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자녀의 안정적이고 통합된 성격 및 행동발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Jone-Leonard(1985)에 의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모는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녀를 더욱 긍정적으로 볼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게 되어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이끈다고 한다. 그리고, Benn(1985)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는 등 심리적 통합성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성격과 정서상태는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상태를 결정지우며 부모의 요구경향과 가정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학교생활의 만족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박소혜, 1995)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주말부부와 관련된 변인을 포함)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후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과천, 안양, 평촌), 강원도(원주)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말부부가족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결혼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ainer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에 기초하여 강은령(1989)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토대로 하여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적응 척도는 부부의 일치도, 부부의 만족도, 부부의 응집도, 부부의 애정표현도라는 4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결혼일치도란 가계제정, 인생관, 가사작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부부의 일치정도이고, 결혼응집도란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공동의 흥미를 공유하는 것이고,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과 관계에 대한 몰입이고, 애정표현도는 애정과 성에 대한 만족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를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아동의 성	남	50	52.0	학년	1-2	6	6.3
	여	46	48.0		3-4	61	62.5
					5-6	29	30.2
어머니 연령	만 25-29이하	2	2.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	1
	만 30-34이하	16	16.7		고졸	45	46.9
	만 35-39이하	58	60.4		전문대졸	13	13.5
	만 40세이상	20	20.8		대졸이상	37	38.5
가정 수입	100-150만원	24	25.0	결혼 기간	6-8년	3	3.1
	151-200	21	22.9		9-11년	40	41.7
	201-300	31	32.3		12-14년	37	38.5
	300이상	19	19.8		15년이상	16	16.7
자녀 수	1명	17	17.7	주말부부 지속 기간	6이하	22	22.9
	2명	68	70.8		7-12개월	23	24.0
	3명이상	11	11.5		13-36개월	28	29.2
			37개월이상		23	24.0	
집에오는 횟수	2-6일에 한번	41	42.7	전화 횟수	하루두번이상	33	34.4
	7-14일에 한번	37	38.5		하루한번	45	46.9
	15-30일에 한번	6	6.3		2-3일한번	8	8.3
	한달이상 한번	12	12.5		4일이상한번	10	10.4
근무지 거리	2시간미만	25	26.0	남편 직업	생산기능직	12	12.5
	2-4시간미만	37	38.5		서비스직	3	3.1
	4-6시간미만	23	24.0		판매직	9	9.4
	6시간 이상	11	11.5		사무직	24	25.0
			행정관리직		31	32.4	
			전문기술직		17	17.7	

조사한 결과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70-.83으로 나타났다. Spanier(1976)는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에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이 4개가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 32개가 이 척도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이수자(1994)가 사용한 사회적 적응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수자의 척도는 가족관계, 교우관계, 대응성, 적응성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60문항이다. 가족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교우관계는 친구와 타인간의 관계를 즐기고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시해주고, 대응성은 현실적인 규율의 타당성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을, 적응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시에 그것을 극복

하고 노력하려는 정도를 나타내 준다. 2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0개 항목에 대한 Cronbach α 를 조사한 결과 .8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5-.83으로 나타났다. 이수자(1992)는 사회적 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의 요인 부하량은 .20이상임을 밝히고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문항내용의 수정 및 검토투를 위한 예비 조사를 거쳐 본조사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조사는 1996년 9월 13일부터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초

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말부부가족이 있는지 알아본 후, 담임선생님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여 작성하도록 한 방법과 유의표집방법을 통해 주말부부가족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 총 300부 중 218부가 회수되었고, 부실하게 기재한 자료를 제외하고 96쌍의 자료 1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항간의 내적합치도를 보는 Cronbach의 계수를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적응의 차이와 아동의 적응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고,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하였다. 모든 유의도는 $\alpha=.05$ 에서 검증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결혼기간, 아동의 성, 아동의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일치도, 결혼만족도, 애정표현도, 결혼응집도, 전체 결혼적응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과 자녀수, 집에 오는 횟수, 남편과의 통화 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적응의 변량분석 즉,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응집도에서 차이($p<.01$)가 나타났는데, 추후, 검사

결과 4년 이상 주말부부를 지속한 가족의 어머니들이 다른 가족(주말부부를 한 지 6개월, 6개월-1년, 2-3년 된 가족)의 어머니보다 결혼응집도가 낮았다.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는데($p<.01$), 추후 검사 결과 자녀수가 1명인 어머니가 자녀수가 2명인 어머니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와 남편과의 통화횟수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일치도, 애정표현도, 결혼응집도, 전체 결혼적응에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즉, 남편이 한달 이상 한 번 집에 오는 가족의 어머니는 다른 주말부부가족(남편이 2-6일, 7-14일, 15-30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가족)의 어머니보다 결혼일치도가 낮았고, 남편이 한달 이상 한 번 오는 가족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2-6일, 7-14일에 한 번 오는 가족의 어머니보다 결혼만족도, 애정표현도, 전체 결혼적응이 낮았다. 또한, 남편이 한달 이상에 한 번 오는 가족의 어머니는 2-6일에 한 번 오는 가족의 어머니보다 결혼응집도가 낮았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가족의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4일 이상에 한 번 하는 가족의 어머니보다 결혼일치도, 결혼만족도, 애정표현도, 결혼응집도와 전체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말부부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어머니의 결혼기간, 주말부부 지속기간, 자녀수, 전화통화 횟수, 아동의 성, 아동의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만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에 따라 아동의 적응성에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는 간격이 한 달이상인 가족의 아동은 다른 주말부부가족의 아동보다 적응성이 낮았다. 그리고, 비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적응의 변량분석

구분	집단	결혼일치	결혼만족	애정표현	결혼응집	전체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결혼 기간	6-8년	43.33	36.18	9.00	11.67	98.67
	9-11년	44.85	34.91	8.80	11.88	100.28
	12-15년	43.22	36.00	8.46	11.86	99.30
	15년이상	41.06	33.96	8.56	11.25	96.56
	F	.456	.390	.169	.081	.095
주말 부부 지속 기간	6개월이하	43.58	36.18	9.02	13.09 a	101.91
	6개월초과1년	44.13	34.91	9.13	12.61 a	100.78
	2-3년	44.18	36.00	8.64	11.61 a	100.43
	4년이상	42.13	33.96	7.74	9.83 b	93.65
	F	.172	.390	1.829	2.405**	.587
자녀수	1명	40.94	30.29 a	8.71	10.82	90.76
	2명	44.74	36.69 b	8.66	11.91	102.00
	3명	40.18	34.36 ab	8.36	12.27	95.18
	F	1.378	4.818**	.089	.465	1.799
	집에 오는 횟수	2-6일에 한번	46.66 a	37.12 a	9.02 a	13.22 a
7-14일에 한번		43.32 a	36.24 a	9.11 a	11.57 ab	100.24 a
15-30일에 한번		45.33 a	33.17 ab	8.50 ab	11.33 ab	98.33 ab
한달이상한번		32.67 b	27.17 b	5.92 b	7.58 b	93.33 b
F		5.734***	6.011***	8.101***	5.538***	7.636***
전화 횟수	하루2번이상	46.24 a	38.06 a	9.15 a	14.00 a	107.45 a
	하루에 한번	44.53 a	35.62 a	8.96 a	11.60 a	100.71 a
	2-3일한번	40.38 ab	33.65 ab	8.25 ab	9.63 ab	91.88 ab
	4일이상한번	32.70 b	26.00 b	5.80 b	6.80 b	71.30 a
	F	4.663***	7.159***	7.296***	9.146***	7.903***
아동 성	남	44.50	35.40	8.58	11.88	100.36
	여	42.50	35.17	8.70	11.63	98.00
	F	.778	.019	.061	.072	.244
아동 학년	1-2	47.00	30.00	8.83	11.83	97.67
	3-4	42.00	35.32	8.37	11.27	96.95
	5-6	45.90	36.45	9.17	13.00	104.52
	F	1.529	1.633	1.237	1.460	1.038

주) ** p<.01 *** p<.0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집단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아동의 가족관계적응과 교우관계적응, 대응성, 적응성, 전체 사회적 적응도는 아버지가 2-6일에 한번, 7-14일에 한번, 15-30일에 한 번, 한달 이상에 한 번 오는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집에 자주 올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아동의 사회적 적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 하위요인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결혼일치도와 가장 강한 상관을 갖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변량분석

구분	집단	가족관계	대응성	교우관계	적응성	전체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M/Scheffé
결혼 기간	6-8년	10.33	9.67	7.33	11.00	38.33
	9-11년	11.43	9.63	7.28	9.28	37.60
	12년 이상	11.78	9.54	7.68	8.97	37.97
	15년 이상	11.56	10.31	9.00	10.31	41.19
	F	.298	.398	1.172	1.068	.640
주말 부부 지속 기간	6개월이하	11.36	9.73	7.45	9.23	37.77
	6개월초과1년	11.83	9.70	8.17	9.83	39.52
	2-3년	11.39	9.07	7.71	8.96	37.14
	4년 이상	11.65	10.48	7.52	9.61	39.26
	F	.144	1.434	.236	.410	.401
자녀 수	1명	11.24	9.94	8.24	9.06	38.47
	2명	11.56	9.65	7.50	9.34	38.04
	3명	12.00	9.73	8.27	10.18	40.18
	F	.248	.098	.558	.499	.206
	집에 오는 횟수	2-6일에 한번	12.05	9.85	7.46	9.44 a
7-14일한번		11.32	9.81	8.32	9.70 a	39.16
15-30일한번		11.17	9.67	7.50	10.17 a	38.50
한달이상한번		10.75	8.92	6.83	7.83 b	34.33
F		.883	.489	.869	1.835*	.935
전화 횟수	하루2번이상	11.85	9.88	8.18	9.58	39.48
	하루한번	11.51	9.53	7.44	9.51	38.00
	2-3일한번	11.25	10.00	7.75	8.75	37.75
	4일 이상한번	11.00	9.70	7.40	8.70	36.80
	F	.283	.166	.379	.362	.303
아동 성	남	11.12	9.70	7.72	9.22	37.76
	여	12.02	9.72	7.72	9.57	39.02
	F	2.550	.001	.000	.320	.470
아동 학년	1-2	10.17	9.67	8.50	9.33	37.67
	3-4	11.63	9.62	7.60	9.22	38.07
	5-6	11.62	9.79	7.59	9.59	38.59
	F	.765	.051	.236	.150	.044

주) ** p<.05 **ab: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4〉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

	결혼일치	결혼만족	결혼응집	애정표현	전체결혼적응
가족관계 적응	.140	.121	.092	.132	.143*
친구관계 적응	.163*	.139	.096	.011	.137
대응성	.167*	.114	.093	.008	.130
적응성	.206*	.138	.072	.123	.176*
전체아동 적응	.214**	.162*	.111	.088	.186*

* p<.05 ** p<.01

의 요인은 아동의 전체 사회적 적응도($r = .214$)이고 그 다음으로는 적응성($r = .206$), 대응성($r = .167$), 친구관계적응($r = .163$)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동의 전체 사회적 적응도와 유의한 상관($r = .1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결혼응집도와 애정표현도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제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전체 결혼적응도는 아동의 전체 사회적 적응도($r = .186$), 적응성($r = .176$), 가족관계적응($r = .143$)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에 있어 부부관계와 아동의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후,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이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 자녀수, 남편이 집에 오는 횟수, 전화통화 횟수에 따라 어머니의 전체 결혼적응과 결혼적응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결혼응집도가 낮게 나타났다. 결혼응집도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계획에 대해 함께 수행하고, 공동의 흥미를 공유하는 것(Spanier, 1976)이다. 그러나,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가족보호, 자녀양육, 경제적인 문제, 친적문제 등을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박숙자, 1994)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남편과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혼자서 일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거나 또는 사소한 일은 혼자 결정을 내린 후

남편에게 알리는 형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결혼응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수가 1명일 때 보다는 2명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통 가정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강은령, 1993; 권아영, 1993; Rollins & Galligan, 1978)는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 결과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둘째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자녀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지지의 부족을 어머니에게 얻으려고 하여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는 정도가 더 강해져서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집에 자주 올수록 어머니의 결혼일치도, 결혼만족도, 애정표현도, 결혼응집도, 전체 결혼적응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외국의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말부부는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한다는 결과(Bunker et al., 1992; Gerstel & Gross, 1984; Groves & Horn-Wingered, 1991)를 지지한다. 이는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개인적인 측면과 아동과 관련된 가족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어머니는 남편과 더 자주 만날수록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주말부부가족의 경우 이 시기는 아동에게 아버지의 역할이 특별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주 올수록 아동보호와 훈육 및 아동통제와 관련된 일들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역할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전화횟수 또한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의 제하위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남편과 적어도 하루에 1번이상 전화통화를 할수록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로의 다양한 개성과 사고를 이해함과 동시에 폭넓은 대화를 하고, 솔직한 자기표현과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결혼적응이 높아진다(김인숙, 1988; 류청옥, 1992)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

과 떨어져 있을 경우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눌수 있는 수단이 전화 또는 팩스이기 때문에, 통화횟수가 많을수록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서로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져서 떨어져 사는 것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여러 갈등이나 불화가 잘 해결되어 결혼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 결혼기간, 자녀수, 아동의 성, 아동의 학년, 전화통화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만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간격이 한달 이상인 가족의 아동은 아버지가 더 자주 집에 오는 가족의 아동에 비해 적응성이 더 낮았다.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아버지는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의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며, 현실에 더욱 적극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Lamb, 1979), 아동 훈육시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바른 것과 그릇된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엄격성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보완한다(Kawai, 1981)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가 더 자주 올수록 아버지와 접촉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아동의 적응성이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결혼적응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 아버지의 전화횟수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전화횟수에 관한 항목이 어머니의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동이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한 횟수는 밝혀낼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표본의 크기가 더 컸으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남아와 여아의 가족관계에 대한 적응을 비교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가족관계에서 적응을 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경우 대체로 아버지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아버지 대신'이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동성의 부모를 더 좋아하게 되고, 동성의 부모를 놀이 친구 및 역할본보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더 많다(Perry & Bussey, 1984)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남아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말부부가족의 아동 특히, 남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결혼일치도는 아동의 전체 사회적 적응, 적응성, 대응성, 친구관계적응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부부간의 조화나 부부간 일치하는 부모-자녀간의 일치율을 돕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형성(Paulson, 1972)하지만, 부모의 불일치는 아동의 부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Block, Block, Morison, 1981; Easterbook & Emde, 1990)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결혼일치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아동은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에 잘 대처하고 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동의 전체적인 사회적 적응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적응 및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Engfer, 1990; Goldberg & Easterbrook, 1984; John-Leonard, 1985)과 일치된다. 즉, 행복하다고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보다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흥미를 나타내어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화 및 협조가 잘되고 상냥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말부부 어머니의 전체적인 결혼적응은 아동의 가족관계적응, 적응성, 아동의 전체적인 사회적 적응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 사이의 행복한 결혼적응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

감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lausen, 1966; Easterbrook & Emde, 1990)는 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표현도와 결혼응집도는 아동의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부간의 화합이 아동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Goldberg & Easterbrook, 1984)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주말부부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결혼응집도가 낮은 이유로 첫째,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을 함께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둘째, 부부관계에는 전혀 갈등이 없으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함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함께 사는 가정일 경우 결혼응집도가 낮은 이유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주말부부의 경우 전자와 후자의 경우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혼합된 효과로 인해 어머니의 결혼응집도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말부부가족 또한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주말부부가족이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지만 가족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결혼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이 달라짐을 입증해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해 측정하였다.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특히 주말부부 변인(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 통화횟수)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말부부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정확히 규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 결혼적응 뿐 아니라 아동양육에 관한 역할 참여도와 같은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좀 더 다각

적인 측면에서 주말부부가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에 관한 독립적인 효과만을 보았으나,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누적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에 자주 오고 전화는 자주 하며 자녀수가 2명인 가족과,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기간도 길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자녀수가 1명인 가족의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각 변인들이 누적되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하나씩 규명함으로써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을 아버지의 직업이동성으로 인해 헤어져사는 가족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남편과 부인이 둘 다 같은 지역에서 전문직종의 직업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가족과 떨어져 사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원의 기능이나 역할, 부모 자녀관계 측면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말부부가족을 비교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적응 척도는 일반적인 부부의 결혼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빈도수를 기록하는 항목에서 '매일', '하루에 1번 이상'에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말부부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말부부가족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는 주말부부가족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표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다른 연구에서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기간을 좀 더 확장하여 더 많은 표본을 표집하여 연구를 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상빈(1994). 가족 및 부부관계와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김인숙(1988). 부부간 의사소통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태현, 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 가족학논집, 제4집.
- 5) 권아영(199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류청옥(1992). 도시주부의 직업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박숙자(1994). 직업과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한국가족학회 편. 서울 : 교육과학사. 212-231.
- 9) 손승영(1995)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3-56.
- 10) 유희정(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1) 이수자(1994). 성격의 행동특성,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정기선(1985). 가족 위기와 부부관계의 변화: 일시해의취업자 가족의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장영식(1995). 인구의 불균형분포,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183-188.
-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 15) 허영숙(1994).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16) Benn, R.(1985). Factors associated with security of attachment in dual career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17) Belsky, J.(1984). The determinant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18) Block, J., Block, J. & Morrison, A.(1981). Parental agreement- disagreement on child 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 19) Bunker, B.B. & Vanderslice, V.J.(1982). Tradeoffs: individual gains and relational losses of commuting coupl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Washington, DC.
- 20) Bunker, B.B., Zubek, J.M., Vanderslice, V.J. & Rice, R.W.(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 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309-407.
- 21) Clausen, J.A.(1966).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Foundation.
- 22) Easterbrooks, M.A. & Emde, R.N.(1990). Marital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s. In R. A. Hind & J. Steven-Hinde(Eds.), Relationship Within Families, 83-103.
- 23) Emde, R.N. & Easterbrook, M.A.(1985). Assessing emotional availability in early development. In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an International Perspective(ed. W.K. Frankenberg, R.N. Emde, and J.Sullivan), Plenum, New York.

- 24) Engfer, A.(1990).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A. Hinde & J.Steven-Hinde(Eds.), *Relationship Within Families*, England: Oxford, 104-118.
- 25) Gerstel, N.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 York: Guilford Press.
- 26) Goldberg, W.A. & Easterbrooks, M.A.(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27) Gross, H.(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Two-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62-576.
- 28) Grossman, H.J.(1977). *Manual 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Washington, D.C.: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29) Groves, M. M. & Horn-Wingerd, D. M.(1991) Commuter marriage: personal, family and career issu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5(4), 212-217.
- 30) Hertz, R.(1986). *More Equal than Others: Women and Men in Dual Career Marriages*. Berkle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31) Howes, P. & Markman, H.J.(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50, 1044-1051.
- 32) Jone-Leonard, D.(1985). Perceptual bias as possible mechan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enver.
- 33) Kawai Hayao(1981). Violence in the home: Conflict between two principles-maternal and paternal. *Japan Quarterly*, 28.
- 34) Kirschner, B.F. & Walum, L.R.(1978). Two-location families: married singles. *Alternative lifestyles*, 1, 513-525.
- 35) Lamb, M.E.(1979). Parental influence and father's role. *American Psychologist*, 34, 938-949.
- 36) Luster, T.(1990). Adjustment of children born to teenage mother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393-404.
- 37) Paulson(1972). *Family Harmony*, Child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Hall.
- 38) Perry, D.C.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39) Rollins, B.C. & Galligan, R.(1978). The developing child and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in Lerner, R.M. and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New York: Academic.
- 40) Spanier, G.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